



# 금속민투위

민주노조 재건!  
현장 침탈 분쇄!  
21년 단체교섭 승리!  
년월차 개선 저지!  
고용 안정 쟁취!

■ 발행인 : 의장 김 태 곤 ■ 발행처 : 선전실(29-22호) ■ 게시기간 : 1월 29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 대표 임 병 우

## 1공장 투쟁 승리 위한 연대로 현대차 조합원 고용 사수하자!

승용 1공장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생존권과 미래 고용안정을 위해 전기차 NE(아이오닉5) 협의와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듈협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사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외주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1공장 대의원회의 입장이다. 이는 조합원들의 작업공정을 확보하여 고용안정을 지키겠다는 당연하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1공장 사측은 사내 작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외주화·모듈화가 본사의 방침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며 협의를 지연 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사측, 신차 강제투입! 1공장 대의원회 생존권 사수위해 라인 정지투쟁으로 맞서다!

사측은 1/20(수) NE 용도차를 대의원회와 협의도 없이 강제 투입하였다. 이에 1공장 대의원회는 고용안정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라인정지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사측이 신차 양산을 위해 노사간 협의가 봉착 상태가 되면 강제투입, 무노동·무임금, 고소고발, 징계 카드로 현장을 옥죄는 전술은 이미 조합원들은 명확히 알고 있다. 현대차 34년의 노사관계에서 사측의 일방통행은 여전하다.

### 1공장 전기차 협상의 결과는 고스란히 전 공장 고용과 직결된다!

사측은 2025전략을 통하여 2025년 신차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국내생산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는 점진적으로 각 공장이 순차적으로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은 1공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전기차 투쟁은 1공장만의 사안으로 바라 볼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기에 1공장 전기차 협상 결과가 향후 전 생산 공장 전기차 양산에 기준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1공장 전기차 투쟁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이후 현대차 조합원의 고용을 장담 할 수 없다.

### 금속민투위 1공장 투쟁 지지 암호 한다!

1공장 전기차 투쟁이 무너지면 향후 현대차 생산공장 조합원의 고용안정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이에 금속민투위는 1공장 투쟁을 지지 암호하며 연대 투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지부 집행부는 전기차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1공장 투쟁을 사수하고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고용안정 투쟁을 통해 사내 작업가능 아이템 찾고 사측을 압박하여 사내 모듈공장을 쟁취하는 것만이 현대차 노동조합의 미래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